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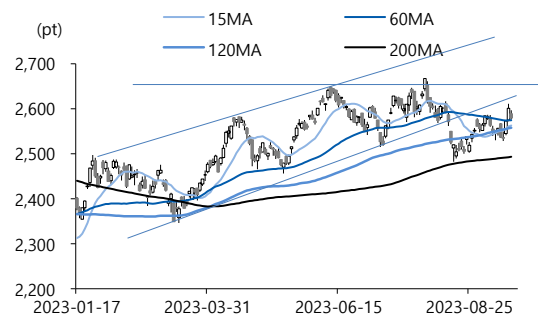


## KOSPI, 횡보 후 상승 가능성

### 1. KOSPI, 증장기 횡보 국면 진입

- KOSPI가 8월 중 하락 과정에서 7월 저점대 하회하고, 120일 이평선 이탈 후 200일 이평선 위에서 반등해 60일 이평선 회복.
- 8월 중 하락으로 연초 이후 진행된 상승 추세 중단. 횡보 국면 진입해 단기간에 전고점인 2,650pt 돌파 후 상승 어려움.
- 그러나 장기 상승 시 200일 이평선 위에서 반등해서 60일 이평선 회복한 경우 몇 달 간 하방 경직성 유지.

KOSPI 일봉과 이평선, 장기 상승 후 120일 이평선 이탈했지만 200일 이평선 위에서 반등 60일 이평선 회복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2. KOSPI, 횡보 후 상승 가능성 높은 이유

- 지금과 같이 장기 상승 후 처음 120일 이평선 이탈 후 상승해 60일 이평선 회복한 경우 횡보 후 상승하거나 장기 고점대 형성.
- PBR 기준으로 250일 평균 PBR보다 높은 경우 대체로 고점대 형성. 지금은 PBR과 250일 평균 모두 0.97배로 낮은 상황.
- KOSPI 이익 전망치 고려할 때, 3분기 이익 급증 앞두고 상승. 4분기 정체 후 내년 1분기 이익 증가 예상으로 4분기 중 다시 주가 상승세 나타날 전망.

KOSPI와 영업이익 추이, 당사 유니버스 기준으로 23년 3분기부터는 전망치 컨센서스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1. KOSPI, 중장기 횡보 국면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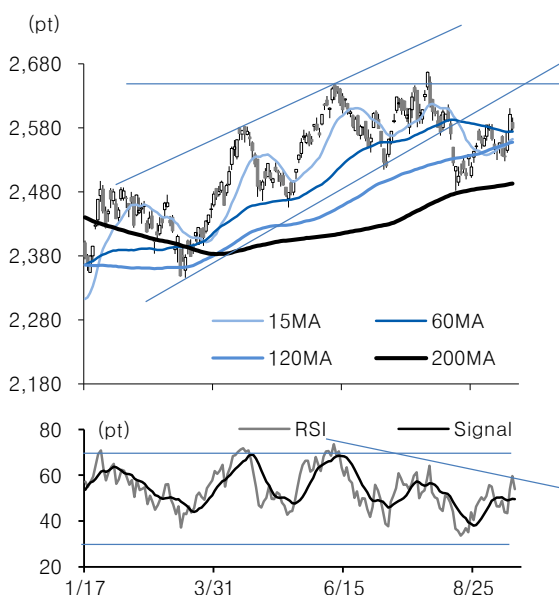
지난 8월 중반 KOSPI가 하락하면서 7월 저점대와 12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연초 이후 진행된 상승 추세가 중단되었다. 200일 이평선 지지로 반등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120일 이평선(경기선)을 일시적으로라도 이탈한 점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장기간 120일 이평선을 상회하다가 이탈한 경우 대부분 장기 횡보로 진행되거나 장기 고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 단기간에 전고점인 2,650pt를 회복하고 상승 폭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차트2]는 지금과 같이 장기간 상승 후 120일 이평선 이탈 후 200일 이평선 위에서 저점을 만들고 반등해서 60일 이평선을 바로 회복한 경우 중 한 사례로 2017년 말을 전후한 KOSPI 차트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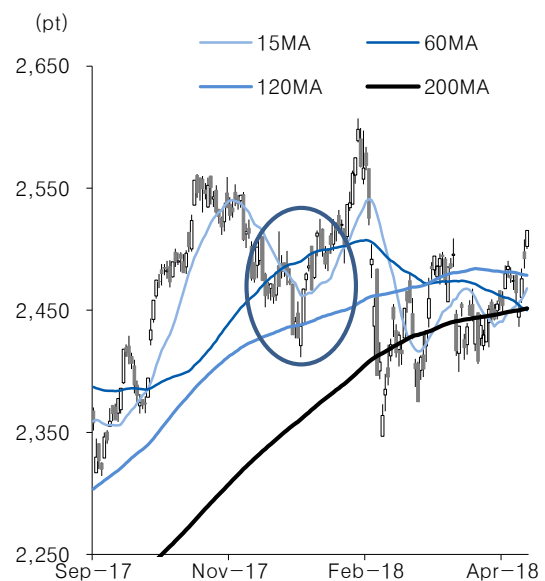
이 경우 장기 고점대를 형성하고 하락 추세로 반전되었지만 5개월 가량 200일 이평선 부근에서 등락하면서 낙폭이 제한된 후에 하락 추세가 전개되었다. 이런 경우의 사례들은 장기 고점을 형성해도 빠르게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차트1] KOSPI 일봉과 이평선, 장기 상승 후 120일 이평선 이탈했지만 200일 이평선 위에서 반등 60일 이평선 회복**



자료: Check,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KOSPI, 장기 상승 후 120일 이평선 이탈 후 200일 이평선 위에서 반등 사례(2017.12)**



자료: Check,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2. KOSPI, 횡보 후 상승 가능성 높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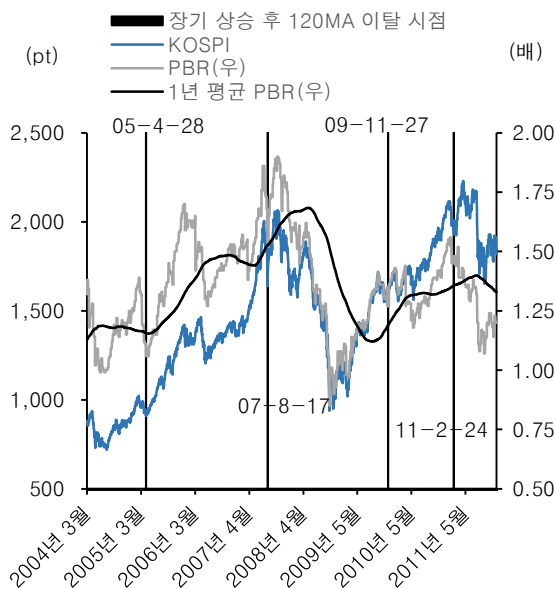
[차트3]은 3개월 이상 120일 이평선을 상회하다가 이탈했지만 200일 이평선 위에서 저점을 만들고 바로 상승해 60일 이평선을 회복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2003년 초 이후로 2017년 12월 사례와 2023년 8월을 포함하면 6번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

이럴 때 장기 고점대를 형성하거나 횡보 후 상승하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PBR 기준으로 보면 250일 평균가보다 높은 경우 대체로 장기 고점대를 형성했고, 비슷한 경우에 횡보 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은 PBR과 그것의 250일 이평선이 모두 0.97배 수준으로 이평선 대비 수준도 높지 않고, 절대적 수준도 낮은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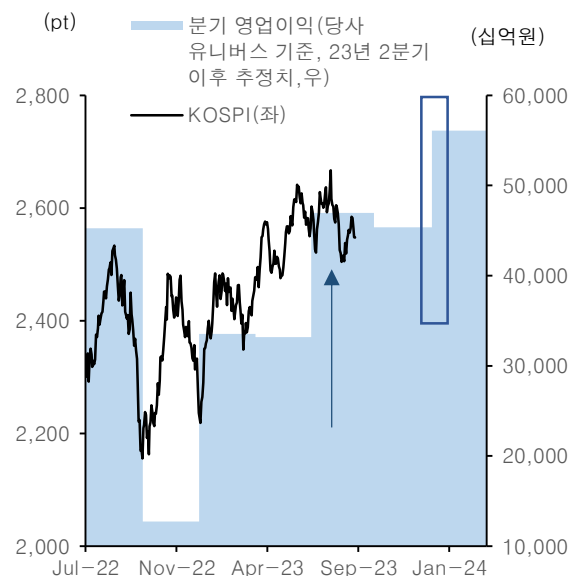
[차트4]는 당사 유니버스 기준 이익 전망치이다. 현재 이익 전망은 3분기 급등 후 4분기 정체, 내년 1분기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7월의 상승이 3분기 이익 증가를 선반영한 것이라면 4분기 중의 KOSPI 상승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차트3] KOSPI, 장기간(3개월 이상) 120일 이평선 상회 후 첫 이탈 후 바로 반등 경우, PBR와 PBR 250일 이평선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KOSPI와 영업이익 추이, 당사 유니버스 기준으로 23년 3분기부터는 전망치 컨센서스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3. WTI, 93달러 수준에 저항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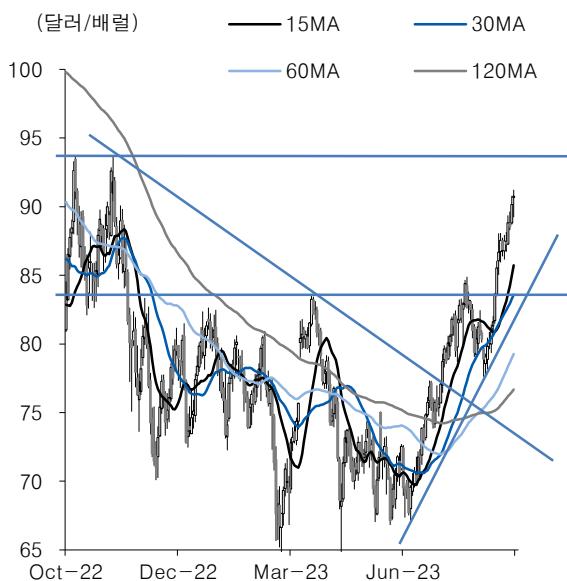
국제유가(WTI)가 최근 상승폭 확대하면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 물가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단기 상승세가 강하게 진행 중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모양이다.

그러나 현재 60일 이평선 기준 이격도가 114.5%로 2022년 3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93달러대에 2022년 10, 11월 고점대의 저항이 위치하고 있다. 이 가격대는 2022년 중 내내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 돌파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9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4.35달러로 종가 기준으로 연중 고점대를 넘어선 모양이다. 아직 전고점 돌파에 대한 확인 과정 필요하지만 중장기 이평선들이 나란히 상승 중으로 상승세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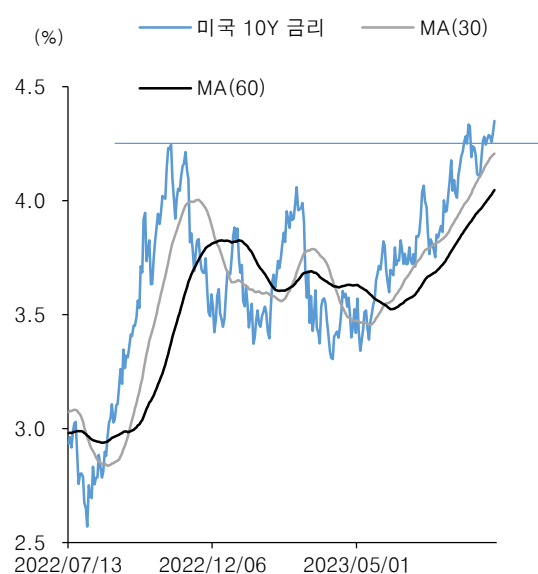
국제유가와 미국 장기 금리 흐름을 볼 때 물가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주식시장의 본격 상승을 늦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런 현상들로 인한 우려감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어 그 부담 역시 제한적일 전망이다.

**[차트5]** WTI 일봉과 이평선, 83.5달러 수준의 저항대 돌파 후 급등. 다음 저항은 93달러 수준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미국 10년물 금리 흐름, 중장기 이평선 나란히 상승하는 가운데 전고점 돌파 시도 중



자료: Check,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